

김수영문학관 2021년 상반기 정기 인문학 강연  
“김수영문학관과 함께하는 김수영 시인과의 산책”

- 제 1 강 -

강연자 : 정용준 교수 (서울예대)

강연주제 : '김수영이 꾸는 꿈'

## 김수영이 꾸는 꿈

정용준(서울예대)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설을 쓰고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학생들과 함께 문학 공부를 하는 정용준입니다.

오늘 저는 <김수영이 꾸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김수영이라는 시인과 그의 시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시인이 아니고 시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고 더 깊이 연구한 평론가 혹은 연구자도 아닙니다. 문학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한 명의 독자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때문에 제 강의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제 강의를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마음보다는 김수영의 시를 좋아하고 또 언어를 통해 문학적인 무엇인가를 표현하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는 한 명의 작가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리고 느낀 독후감을 듣는다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느끼고 발견한 부분과 독자님들이 발견하고 느낀 부분의 공통점이 있었으면 좋겠고 한 걸음 나아가서 바라보는 것은 김수영의 시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을 통해 한 명의 고유한 독자로서 시를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신감 혹은 즐거움을 갖기를 바랍니다.

문예창작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문학을 과연 가르칠 수 있는가? 라는 근원적인 고민을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문학을 배울 수 있는가? 라는 고민도 합니다. 제 결론은 가르칠 수 없고 배울 수 없다. 입니다. 그렇다면 문학을 가르친다는 것과 배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험을 나누고 감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표현하는 것. 다른 이의 표현이 내 표현에 흡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시와 소설 같은 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배우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해야 할 것은 시를 읽었을 때의 내 감각입니다. 문장과 표현을 만났을 때의 내 느낌입니다. 알 듯 모를 듯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그 무엇에 대해 나는 호기심을 느껴야 하고 궁금증을 가져야 하며 연구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오늘 저도 제가 느끼고 감각한 것들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김수영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그의 정보 그의 이력 그의 문학의 발자취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웠고 상식으로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을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 시를 이해하는 코드 같은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저항의 시인. 자유를 갈망하는 시인. 모더니스트 시인. 등등등 그렇죠.

저는 오늘 <김수영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접근해보려고 합니다.

꿈은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래희망. 원하는 것. 소망. 소원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현실에서의 꿈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멀리 있는 이상향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꿈에서 다시 보고 느끼고. 원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원하지 않은 것도 포함됩니다. 아름다움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공포와 두려움도 있습니다. 김수영과 꿈을 함께 놓고 생각하면 결코 아스라이 멀리 있는 유토피아나 이상적인 세계 같은 것은 아닐겁니다. 만나고 싶지 않고 겪고 싶지 않은 것들. 현실적이고 뻘한 것들. 연연하는 것들.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욕망과 말할 수 없는 슬픔 같은 것들도 꿈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로 김수영의 시에서 꿈을 발견하다면 매일 매일 꾸는 실제적인 꿈이 시가 되어 표현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모든 표현들이 제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를테면 꿈의 조각들. 반복 재생되는 꿈의 장면들.

-

시 한 편 보시겠습니다.

서시

김 수 영

나는 너무나 많은 첨단(尖端)의 노래만을 불러왔다  
나는 정지(停止)의 미에 너무나 등한하였다  
나무여 영혼이여  
가벼운 참새같이 나는 잠시 너의  
흥하지 않은 가지 위에 피곤한 몸을 앉힌다  
성장(成長)은 소크라테스 이후의 모든 현인들이 하여온 일  
정리(整理)는  
전란에 시달린 이십세기 시인들이 하여놓은 일  
그래도 나무는 자라고 있다 영혼은  
그리고 교훈은 명령은

나는 아직도 명령의 과잉을 용서할 수 없는 시대이지만  
이 시대는 아직도 명령의 과잉을 요구하는 밤이다  
나는 그러한 밤에는 부엉이의 노래를 부를 줄도 안다

지지한 노래를  
더러운 노래를 생기없는 노래를  
아아 하나의 명령을

(1957. 8.)

서시하면 윤동주 시인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러나 김수영이 쓴 서시도 있습니다. 서시는 책의 머리말 같은 것입니다. 시에서 가장 먼저 쓰는 이를 테면 프롤로그 같은 것.

아니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작가의 에센스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제목을 미루어보면 작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윤동주는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괴로워했다.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것이다. 내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엿볼 수 있고 다른 시에서도 서시에 담긴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죠.

이 시에서 김수영은

첨단의 노래만을 불러왔다. 정지의 미에 너무나 등한하였다.

나무여. 영혼이여.

성장. 명령. 20세기가 걸어온 발자취이지만

여전히 나무와 영혼은 있고 자라고 있다는 것.

근대정신. 첨단을 향해 점점 날카로워지는 세계. 콘크리트와 기계가 자연을 파괴하고 점점 커져가는 세계에 대한 시인의 성찰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지의 미.

그리고 나무와 영혼.

요즘 저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첨단의 시민으로서 세계의 발전의 유산을 누리고 즐겨워하면서도 문득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환경을 파괴되고 기후는 변하고 사람은 더 슬퍼지고 많은 이들이 스스로 죽는 이 세계가 과연 발전했다고 할 수 있을지.

나무로 만든 집보다 콘크리트로 만든 집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을지

모닥불보다 가스불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어째서인지 반성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쩌면 시인도 그동안 계속 불러왔던 첨단의 노래에 대해  
회의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본의 힘. 문명의 힘. 빨라지고 강해지는 이 견고한 세계가  
정말로 사람을 위한 세계일까요. 더 행복해지는 세계일까요.  
시인의 고민이 저에게도 그래도 옮겨오는 기분입니다.

정지의 미와 나무와 영혼.

어쩌면 김수영은 밤마다 나무와 영혼을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첨단의 노래 대신 어둔 밤을 고요하게 두드리는 부엉이의 노래를 불렀는지도 모릅  
니다.

첨단의 노래가 이성과 지식 그리고 질서가 있는 코스모스의 세계라면

부엉이의 노래는 감성과 감정 그리고 혼돈이 어둠 속에 잘 섞여 있는 카오스의 세  
계일 것입니다.

-

또 다른 시를 보겠습니다.

봄밤

김 수 영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처럼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  
개가 울고 종이 울리고 달이 떠도  
너는 조금도 당황하지 말라  
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이여  
오오 봄이여

한없이 풀어지는 피곤한 마음에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너의 꿈이 달의 행로와 비슷한 회전을 하더라도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기적소리가 과연 슬프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서둘지 말라 나의 빛이여  
오오 인생이여

재앙과 불행과 격투와 청춘과 천만 인의 생활과  
그러한 모든 것이 보이는 밤  
눈을 뜨지 않은 땅속의 벌레같이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은 서둘지 말라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절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오오 나의 영감(靈感)이여

(1957. 12.)

-

이 시는 김수영의 시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데요. 김수영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둘지마라. 업적을 바라지 마라. 당황하지 말라. 슬프다 하더라도 결코 서둘지말라 인생에게 말하고 있고 당신에게 말하고 있고 귀여운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지침서라고 해야 할까요.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이 와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새해가 밝아도 날짜와 인식만 새롭지 우리의 삶은 지지부진하죠.

수 많은 일에 늘 시달리고 초조하고 불안하면서도

그 어려운 마음으로 대부분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애타는 마음. 피곤한 마음. 헛되이 도는 꿈. 재앙. 불행. 천만인의 도시 생활.

이 모든 어려운 마음에게 그런 인생에게 아들에게 그런 사람들과 스스로에게 봄밤에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둘지마라. 업적을 바라지 마라. 당황하지 말라. 슬프다 하더라도 결코 서둘지말라

눈을 뜨지 않는 벌레같이.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제가 또 좋아하는 동명의 소설이 있습니다.

권여선 작가의 <봄밤>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소설은 알코올 중독자와 류머티즘 환자의 사랑이야기인데요. 처연하고 슬프고 사랑스럽고 어째서인지 마음에 위로가 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김수영의 <봄밤>이 나오는데요.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는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한편의 시를 더 보겠습니다.

푸른 하늘을

김 수 영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왔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1960. 6.)

이 시는 김수영의 시 중에서 널리 알려진 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를 자유와 저항의 상징으로 인식시켜준 에너지 넘치고 감정의 파고가 강한 그런 시입니다. 노고지리는 종달새입니다. 푸른하늘을 나는 종달새가 자유롭다. 이런 감상적이고 전통적인 시 정신과 노래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도발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정되어야 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자유는 그렇게 말 그대로 자유롭지 않다는 것. 노래하며 편안하게 하늘을 나는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를 위해서 그것을 맛보기 위해 애를 쓴 자들은 비상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고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 애를 써본적이 없고  
어떤 의미로는 우리의 자유가 그냥 얻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거리를 걷고 계급이 없고  
자유롭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누구를 지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아도 되고 내 발로 어디든 갈 수 있는 모든 것에는  
누군가 피를 흘렸다는 것. 누군가는 혁명적으로 살았고  
그들은 그저 멋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근사한 사람의 이미지가 아닌  
삶에 배신당하고 여러 안락을 포기한 고독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까?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하겠지만 깊이 고민해보면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운명으로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김수영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푸른하늘을 나는 종달새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상해야 하고 노래해야 한다는 것  
다만 비상은 그렇게 아름답고 편하지는 않을 것이고  
노래라고 듣는 새의 소리는 어쩌면 비명일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 선택하고 매 순간 사는 자들은 크고 작은 혁명가들이며  
그것의 대가는 고독할 것이라는 것이죠.

고독해야 한다, 는 말이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많은 일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게 해줍니다.  
적당하게 느슨하게 대했던 것들에 긴장을 심어주고 가치를 올려주는 것

-

오늘 저는 김수영의 3편의 시를 통해 김수영이 밤마다 시달리고 마음 속에 소소하  
게 혹은 진지하게 반복하며 생각하는 꿈의 조각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첨단의 노래보다는 부엉이의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속도와 발전에 몸을 실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누구를 해하거나 힘들게 하는지도 모르고

살펴보지도 않고 발전하고 달려가는 모든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며  
정지의 미를 발견하라고 합니다.

또한 너무 분주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봄밤이라고 말해줍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봄밤을 만끽하자는 것이죠.  
서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영혼처럼. 고요한 봄의 나무처럼  
그렇게 느끼고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영은 우리에게 자유로워지라고 주문합니다.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편하게 갖고 있는 것을 누리고 루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혁명  
가로 사는 것이라는 것.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새의 노래를 더는 감상적으로 낭만  
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력을 거슬러 작은 날개로 하늘을 날고 비행을 유지하는 그 노력과 애씀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그것이 피를 흘리는 일  
이 될지라도 종달새처럼 날자는 것입니다.

혁명의 고독함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수영은 단순히 이 세계에 불화하고 화만 내고 모든 것에 괴팍하게 시비를 걸고  
다니는 근대의 모더니스트 시인의 이미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의 소중함. 삶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그냥 살지 않는 것.  
작은 혁명가로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분투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요구하고  
그 자신도 실천한 여전히 우리에게 가까운 시인입니다.